

알고 계셨습니까?

-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검사를 받으세요!
- 검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가 가능한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하거나 암이 발병하기 전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.



- 대장암 또는 용종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.
-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건강하게 먹고, 운동하고,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. 음주는 적당히 하고 금연하셔야 합니다.

보험이 없습니까?

보험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New York State Cancer Services Program(암 서비스 프로그램)은 모든 지역구와 자치구의 뉴욕 거주민 중에서 보험이 없고 자격 대상인 분들께 무료 대장암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로컬 Cancer Services Program에 연락하거나 **1-866-442-2262**번으로 전화하여 인근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.



아울러, New York State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**855.355.5777**번으로 헬프라인에 전화하시거나 nystateofhealth.ny.gov를 참조하세요.



유용한 정보 알아보기 대장암



대장암은 뉴욕 시민에게 두 번째로 높은 암 사망 원인이지만, 막을 수 있습니다.

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45세 이상의 모든
성인은 대장암 검사를
받아야 합니다.

대장암이란?

대장암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시작되는 암입니다. 대장 및 직장은 신체의 소화기관의 일부입니다.

이상 종양(용종이라고도 함)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시작되며 암으로 변이될 수 있습니다.



왜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?

대장암 검진을 통해 용종을 발견하여, 암으로 변이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.

검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가 가능한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.

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
나이가 대장암의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. **45~75세 성인은 반드시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** 75세 이후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.

일부는 45세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음의 경우라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 보세요.

- 본인 또는 가족에게 대장암이나 용종이 생긴 적이 있는 경우
- 본인 또는 가족이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장자병(IBD)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
- 가족성샘종폴립증(FAP)이나 린치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증후군이 있는 경우

대장암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?

대장암 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,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!

분변면역화학검사(FIT), FIT-DNA 검사 또는 분변잠혈반응검사(FOBT)

자택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, 분변 샘플을 병원이나 검사 기관을 보냅니다.

대장내시경

신축성 S자 결장내시경은 병원이나 기타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의사가 직장 또는 대장에서 종양(용종)이나 암세포를 찾습니다.

신축성 S자 결장내시경

대장내시경과 유사하며, 의사가 직장 및 대장의 하부에서 종양이나 암세포를 찾습니다.

대장암의 증상은 무엇입니까?

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대장암이 있으면서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피가 보이거나 타르 같은 분변
-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나 당김
- 변비나 설사가 발생하는 등 배변 패턴이 달라짐
-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

위의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,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세요.

아무리 좋은 검사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.

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검사를 선택하세요.